

정찬길

건국대학교 축산대학 교수

# 경기와 경기의 순환

## 1. 경기(景氣)란

경기란 전반적인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국민경제 전체의 경제활동수준이 어느정도에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다. 또한 축산업의 경영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매출액이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정도를 뜻하기도 하고, 일반적 측면에서 보면 개인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는 정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 2. 경기는 파도와 같이 변동한다

자연계에 있어서나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나 그 움직임은 여러가지 리듬을 그리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자연계에 있어서는 4계절이 변하고 동식물은 이에 맞추어 번식과 성장 및 노사의 순환을 갖게 된다. 인간의 생활에도 많은 순환이 있다. 짧게는 하루의 순환에서부터, 1주일의 순환, 나아가서는 1년의 순환이 있다. 경제에 있어서 서로 경기의 순이 끊임없이 반복하게 된다.

경기는 장기적으로 보면 끊이지 않고 반복 되풀이하며 변동한다. 즉 경기의 변동은 파도와도 같다. 파도에는 낮은 골짜기와 높은 봉우리가 있으며 이 골짜기와 봉우리는 유사한 시간간격을 두고 번갈아 나타난다. 경기는 최저수준으로부터 점차 회복되어 경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봉우리에 다다른 후에 경제활동이 다시 둔화되기 시작하여 계곡으로 되돌아 간다. 이와 같은 경기의 움직임을 경기의 순환(循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경기순환은 경기가 그 골짜기에서 다른 골짜기로 되돌아 오는 데 소요되는 기간의 길이에 따라 장기순환, 중기순환, 단기순환으로 나누기도 한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세계 각 나라의 경험에 의하면 약 2~6년이 걸리는 단기순환이 비교적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

축산업에도 이러한 단기순환 현상이 양돈과 양계에, 중기순환 현상이 육우산업의 주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지만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기순환에 2~3년을 1주기(週期)로 하는 옥수수·돼지사이클(Corn-Hog Cycles) 또는 거미집원리(Cabweb Cycles)라는 경기순환 현상이 양돈산업에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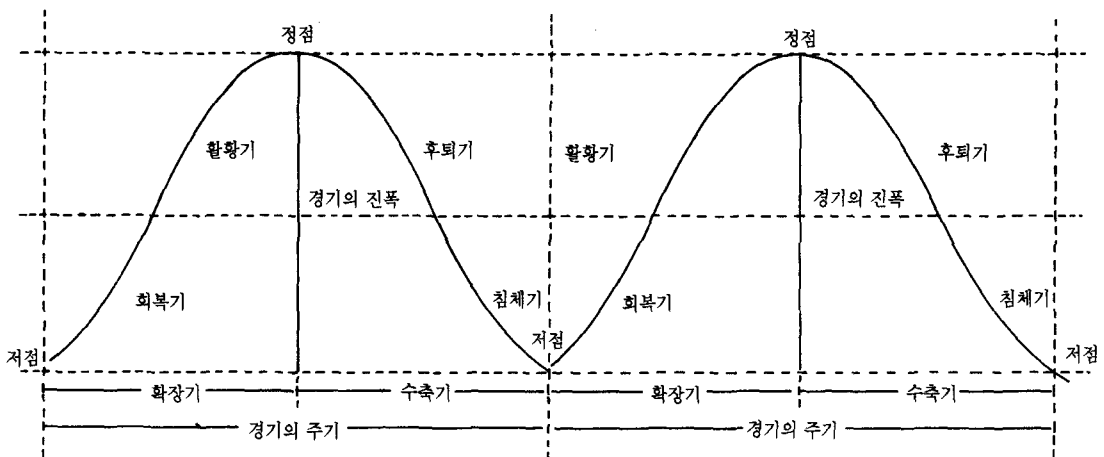
옥수수 값이 상승하면 옥수수 생산이 유리해져서 옥수수 재배가 늘어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옥수수가 대량생산되어 시장에 출하되면 옥수수 값이 폭락하게 된다. 그러면 옥수수를 사료로 하는 돼지생산이 유리해진다. 옥수수를 많이 먹이는 돼지사육이 급증하게 되고 돼지를 대량으로 사육하면 옥수수의 수요가 늘어나 값은 또 다시 상승하고 돼지사육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그래서 옥수수는 다시 대량으로 생산되고 이에 반하여 돼지는 시장에 대량출하

되어 돼지값이 떨어지고 돼지사육이 줄어든다. 다음에 다시 옥수수 값이 떨어지고 돼지의 생산이 유리해진다. 이와 같이 돼지생산과 옥수수 값이 밀접한 관계가 순환적 특징을 갖고 있다. 축산업에 있어서 옥수수만이 아니고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가축생산과 순환관계가 나타나기도 한다.

경기의 순환과정을 <그림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개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을 4개의 단계 혹은 국면으로 나누어 보는 방법이 가장 잘 이용되고 있다. 이 4단계 구분에 있어서 경기과정을 우선 경제활동이 가장 낮은 골짜기(저점)에서 봉우리(정점)에 이르기까지를 경기의 확장국면(擴張局面)이라 하고 경기의 봉우리에서 다음 골짜기에 이르기까지를 경기의 수축국면(收縮局面)이라 하여 둘로 나눈다. 그리고 확장국면은 다시 그 초기단계인 회복국면(回復局面)과 이에 이어서 봉우리를 향해 계속 활발해지는 활황국면(活況局面)으로 나누고 수축국면(收縮局面)은 다시 경제활동이 둔화되기 시작하는 초기단계로서의 후퇴국면(後退局面)과 그 뒤 경제활동이 계속 위축되어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침체국면(沈替局面)으로 나눈다.

경기의 순환과정은 단순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1. 경기의 순환과정



것이 아니라 각 순환과정이 주기(週期)와 진폭(振幅)이 각각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한 주기내에서도 수축기와 확장기의 길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문제는 양돈주기다 또는 한우주기다 하지만 이들 기간은 3~4년이다. 또는 9~10년이다 등 경기의 주기는 측정하기에 용이하고 향후 예측도 가능하지만 봉우리와 골짜기에 이르는 경기의 진폭의 측정은 결코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축산업의 경기전망은 경기의 주기성도 중요하지만 경기의 진폭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폭의 크기에 따라 손해와 이득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 3.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경기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음은 국민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축산업에도 수차에 걸쳐 경험한 바 있는데 이러한 경기의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기업의 투자활동의 변화, 일반소비자의 소비지출이나 정부지출의 증감, 수출의 변동, 통화량의 증감 등이 모두 경기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이다.

예컨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고 하면 기업가는 이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위

해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여 생산설비와 자재를 구입하고 인력을 고용하여 생산활동을 시작한다. 이는 생산설비와 자재를 생산하는 산업도 생산을 늘리기 위하여 시설을 확장하고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이 다른 업체에게 계속 번지게 되면 결국 국가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고 시장경제가 활발해져 경기는 좋아지게 된다. <그림2> 한편 호조를 보이던 경기도 시설이 지나치게 방대해져 생산과잉현상이 일어 나거나 국내 수요의 수축이나 해외경기침체로 수출이 잘 되지 않게 되면 재고누증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투자가 감소되어 생산이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고용축소를 초래함은 물론 소비자의 소득감소로 이어져 소비지출이 감소하게 된다.

경기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요인들 외에도 전쟁, 천재지변, 병충해, 질병, 자원수급의 불균형 또는 소비자나 기업가, 생산자의 심리적 상황 등에 의해서도 큰 영향을 받게 된다. 1,2차 석유파동에 따른 심각한 경기 침체는 이와 같이 특수한 요인에 의한 경기변동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요즘의 3저(三低) 현상 또한 경기활황으로 이어지는 경기변동의 특수한 예라 할 수 있다. <계속>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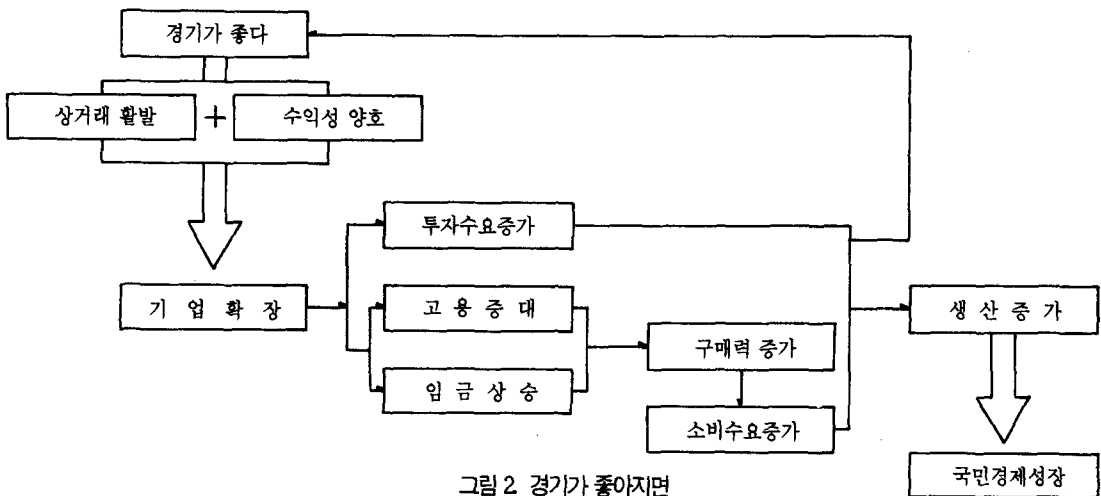


그림 2 경기가 좋아지면